

대학 내 뮤지컬학과의 개설현황 연구

이에스더* · 이정선**

현대 공연예술의 종류와 장르는 매우 다양하다. 수많은 공연예술 분야 중에서 오늘날 대중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 뮤지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뮤지컬이 우리나라 대학 내에서 교과목 또는 전공분야로 시작된 지 10여년이 지났다. 현재 약 30여 대학 및 8개 대학원에 뮤지컬학과(전공)가 개설되어 있으며 그 숫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초창기 각 대학의 고유한 환경과 여건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신설된 뮤지컬학과는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현재의 학과 또는 전공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뮤지컬이라는 새로운 학문분야가 우리나라 대학 내에서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현재 학과(전공)로 정착되어진 현황에 대해 연구하였다.

※ 주제어 : 뮤지컬, 뮤지컬학과, 공연예술

차 례

I. 들어가는 말

II. 우리나라 뮤지컬의 시작과 정착

1. 뮤지컬의 시작
2. 뮤지컬의 정착

III. 대학 내 뮤지컬학과의 개설 현황

1. 뮤지컬학과의 개설 배경
2. 뮤지컬학과의 개설 현황

IV. 나가는 말

* 계명대학교 뮤직프로덕션과 부교수

** 동국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교신저자(gitajabi@yahoo.co.kr)

I. 들어가는 말

현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매우 복잡하며, 이와 관련된 용어도 상당히 많다. 그중에서도 흔히 오늘날을 문화산업의 시대, 대중과 정보의 시대, 통합과 융합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시대사조적, 학문적인 면에서는 다분히 학제간 교류, 통합과 융합, 통섭의 개념이 일반화 되고 있는 시점이다. 예술분야에서는 순수예술과 대중적 실용예술의 만남을 통해 새롭게 하이브리드적인 문화콘텐츠가 탄생되어 문화산업의 기반이 되고 있다. 예술과 문화가 곧바로 산업으로 이어지는 현 시대에, 예술의 대중적, 통합적, 실용적, 상업적 특징을 지닌 뮤지컬(Musical)은 공연예술의 한 장르이자 문화산업의 메카로서 현시대적 패러다임에 부합하면서 대중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예술분야의 통합과 융합이라는 대중예술의 기준이 되고 있다.

뮤지컬은 음악, 무용, 연극이 한데 어우러진 종합무대예술이므로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뮤지컬이 대중에게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 그리고 전문 인력에 대한 필요성 또한 증가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점에 무한 교육경쟁의 시대에 직면한 대학기관이 대중적, 실용적이면서 통합적 예술성을 추구하는 뮤지컬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2000년에 동서대학교와 백제예술대학에 뮤지컬과가 신설되면서 뒤따라 변화와 도전에 민감한 여러 대학들이 그들이 지닌 고유한 교육적 토양과 환경에 의해 뮤지컬학과¹⁾를 신설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관련 학과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뮤지컬 교육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뮤지컬학과가 처음에는 연극영화과, 음악과, 무용과 등 예술관련 학과 내 교과과정의 일환으로 존재하면서 점차 독립적인 학과의

1) 뮤지컬학과의 명칭은 각 대학 내 학과의 특성에 따라 '뮤지컬과' 또는 '뮤지컬전공'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과의 고유명사로 표시해야하는 것을 제외한 내용에서는 모두 뮤지컬학과로 통일시켰다. 따라서 본문에서 사용되는 뮤지컬학과는 뮤지컬과, 뮤지컬전공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뮤지컬이 우리나라 대학 내에서 학문적으로 뿌리를 내린지가 어느덧 10년이 지났다. 그러나 현재까지 뮤지컬과 관련된 선행연구들(고금만; 2002, 김광선; 2008, 김균형; 2006, 노영해; 2003, 신원선; 2007, 유인경; 2003, 이선희; 2008, 최승연; 2006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뮤지컬 자체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뮤지컬학과에 대한 것은 전혀 없었다. 즉, 뮤지컬학과가 우리나라 대학 내에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개설 현황에 대한 연구는 아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기관에서 개설되어온 뮤지컬학과의 설립형태와 학과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사회현상과 실질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지닌 대중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은 더욱 현시대와 사회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신생학문이 대학 내에 단독학과로 존재하면서 학문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수많은 변화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대학 내에서 설립되어 현재까지 존재해온 뮤지컬학과들의 시작과 개설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대학에서 보다 더 안정화되고 전문화되는 뮤지컬교육 연구의 기초자료가 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뮤지컬 학과의 개설형태와 현황에 대한 것으로 제한점을 두며, 향후 본 주제에 대한 개선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속화 할 것이다.

II. 우리나라 뮤지컬의 시작과 정착

뮤지컬(Musical)이란 음악, 무용, 연기, 의상, 무대장치, 조명, 분장 등 각 분야가 서로 조화롭게 결합하여 만들어진 종합예술로써 대중성을 가진 음악극의 한 분류로 정의될 수 있다(이에스더, 2006). 뮤지컬은 뮤지컬 코미디(Musical Comedy) 또는 뮤지컬 플레이(Musical Play)의 약칭어로서 그 기원은 19세기 말 영국 런던으로부터 출발했으며, 그 이후 미국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이에스더, 2007, 2008). 프랑스나

독일에 진출만한 자국의 오페라 전통이 없는 영국에서는 19세기 중반부터, 익숙한 오페라나 이야기를 풍자적으로 다루며 말장난과 노래 패러디가 가득한 ‘코믹 오페라’가 발전하였다. 이 형식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보드빌²⁾이나 민스트럴 쇼³⁾와 결합하여 뮤지컬 코미디로 발전하게 되었다. 뛰어난 재즈 음악가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형태를 갖춘 미국식 송앤댄스(Song and Dance) 뮤지컬은 1920년대에 오페레타의 본고장인 유럽대륙에서도 유행하기 시작하였다(정영목, 2004).

1930년대에서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최전성기를 맞이한 뮤지컬형식은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변화하기 시작했다. 뮤지컬은 로큰롤 뮤지컬, 오페라 양식의 뮤지컬, 화려한 조명과 무대장치를 강조하는 뮤지컬, 사회비평을 내용으로 하는 뮤지컬, 향수를 주제로 한 뮤지컬, 순수 쇼로서의 뮤지컬 등 여러 가지 주제와 형식 그리고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방향으로 나뉘어 발전하기 시작하여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다.

뮤지컬의 탄생으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발전과정은 크게 4기로 구분된다. 독특한 공연예술로 완성된 1930년대가 제1기이며 이때를 뮤지컬 황금기라고 부른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평화로운 시대를 되찾은 50년대부터 60년대 전반까지를 제2기라고 부르며, 이 시기 뮤지컬의 특징은 전쟁의 아픔과 어려운 시대의 모습을 낙천적 세계와 긍정적인 미래의 꿈으로 바꾸고자 했다⁴⁾. 뮤지컬의 전환기로 불리는 제3기는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이며, 사회적인 주제와 사실적 내용을 바탕으로 한 진지한 뮤지컬이 중심이 되었다. 기존의 낙천적이고 낭만적인 것보다는 호소력이 강한 작품들(헤어, 코러스 인, 지붕위의 바이올린 등)이 많았다(김성희, 2001).

2) 대중예술의 한 양식으로서 189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 초에 미국에서 인기 있던 가벼운 연예 쇼를 의미한다. 솔직한 노래나 음악, 댄스, 쿤트, 예술 만담 등으로 구성되며, 공연 초기에는 버라이어티라고도 불렸다.

3) 흑인노예들을 풍자적으로 묘사해 춤과 노래를 소재로 하고, 흑인으로 분장한 백인 가수들이 벌이는 대규모 쇼이다.

4) 이 시기에는 예술성 높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작가와 작곡가, 안무가들이 공동 작업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대표적 작품으로는 ‘사운드 오브 뮤직’(1959)이 있다.

뮤지컬의 변천이나 발전양상은 그 나라, 그 시대적 배경과 문화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우리나라 뮤지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며 악극, 창극 등 우리나라 전통 공연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출발했다.

1. 우리나라 뮤지컬의 시작

우리나라에서도 서양의 뮤지컬과 유사한 형태의 악극 및 창극과 같은 전통적인 음악극 형식의 공연물들이 존재해왔다. 우리나라 최초의 뮤지컬은 유치진의 연출로 1962년 드라마센터에서 공연된 <포기와 베스>이다. 우리나라의 현대적 뮤지컬 양식의 시작은 '예그린악단'에서 찾을 수 있다. '예그린악단'은 전통예술의 현대화와 대중화를 목표로 시작하여 국내에서 가장 많은 관객을 확보하면서 발전해온 35년 전통을 가진 단체이다. 특히 이 단체는 1961년 10월 '예그린(옛과 어제를 그리며 내일을 위하여)악단' 창단 공연인 <삼천만의 대향연> 이후 <살짜기 읊서예>, <양반전>이란 작품을 공연하면서 한국전통예술의 국제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한국을 세계에 소개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악단은 대중에게 안정된 문화정서를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종합예술로서는 처음으로 공연예술창달에 이바지한 것이다. 이후 서울시로 이관되면서⁵⁾ <춘향전>, <시집가는 날>, <지붕위의 바이올린> 등의 창작 및 번역뮤지컬로 발전하는데 공헌하였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한국적 뮤지컬 발전에 힘쓰고 있다(최창주, 1997).

1966년 완성도나 대중적 성공에 있어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적인 창작뮤지컬로 평가받는 <살짜기 읊서예>가 '예그린악단'에 의해 초연되었다. 이 작품은 당시 상당한 반응과 호응을 불러일으켜 음반으로도 제작되었으며, 패티 김이 부른 주제가 어느 대중가요보다도 더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 음악, 무용, 연극 등 각 분야의 전문인과 인기스타로 구성된 이 작품

5) '예그린악단'은 1973년 국립가무단으로 재창단 되었고, 1978년 세종문화회관 개관과 더불어 서울시로 이관되어 김희조(金熙祚)를 초대단장으로 하는 서울시립가무단으로 창단, 활동하였다. 그 이후 1999년 7월, 세종문화회관이 재단법인으로 바뀌면서 현재의 명칭인 '서울시 뮤지컬단'으로 바뀌었다.

은 화려하게 한국 뮤지컬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다(김영아, 2007). 한국 창작뮤지컬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살짜기 읊서예>6)가 공연된 1966년을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뮤지컬이 시작된 시기로 보는 분위기 속에서, 1965년 전세권의 제3극장이 공연한 <새우잡이>7)를 우리나라 현대 뮤지컬의 시작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유인경, 2003).

2. 우리나라 뮤지컬의 정착

공연예술 자체는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지만 대중과는 약간의 괴리가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한 최첨단 산업의 발달은 여가 시간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고, 중산층들을 중심으로 한 문화적 체험에 대한 욕구 또한 늘어나게 되었다. 처음에는 주로 오락문화 형태로 대중문화를 수용하던 대중들은 점차 창조적 문화의 수용자로 발전하고 있다(이예스더, 2007). 이에 따라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공연예술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은 커지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뮤지컬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현대적 개념의 대중 문화산업의 핵심매체가 되고 있다. 뮤지컬은 노래, 춤, 연기 등 다양한 예술장르가 합쳐지고 무대, 의상, 조명 등 화려한 볼거리와 비교적 일상적이고 가벼운 소재로 접근하여 대중에게 점차 각광을 받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원작과 제작자에 따라 분류되는 창작 뮤지컬, 수입 뮤

- 6) 그 이유는 대중관객의 반응, 흥행성적면, 규모와 내실면, 그리고 양식적인 측면에서 현대적인 뮤지컬 양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최창권, 1991. 뮤지컬, 한국음악협회 편: 한국음악총람. p.513).
- 7) 1965년에 명동의 국립극장에서 전세권이 극단 제3극장에서 큰 뜻을 가지고 창작뮤지컬 '새우잡이'라는 공연을 기획·연출했다. 첫 공연 날 관중이 5명밖에 오지 않아서 반주를 맡았던 오케스트라가 선금을 요구했다가 공연을 거부하고 극장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여 피아노반주로만 공연을 했다. 비록 관중은 적었으나 음악, 안무, 반주 등 뮤지컬의 기본 요건은 다 갖춘 창작 뮤지컬공연이었다(안광희, 2004. 단국대학교 신문. 11월 24일. 에버영과 함께 '60년대의 추억'에서 재인용).
http://everyyoung.ne.kr/bbs/zboard.php?id=60anni&page=1&sn1=&divpage=1&category=9&sn=off&ss=on&sc=on&select_arrange=name&desc=desc&no=219
<http://blog.daum.net/musicalmaker/5003501> 참고).

지컬, 번역 및 번안 뮤지컬 등 다양한 종류의 뮤지컬들이 공연되고 있다. 뮤지컬 제작에 대기업이나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뮤지컬 시장의 규모 또한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영화로 성공한 작품들이 속속 뮤지컬로 제작되어 과거 연극이 영화의 소재가 되었던 것과 반대의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영화계가 뮤지컬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뮤지컬 산업의 성장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대형기획사와 전문 엔터테인먼트사가 뮤지컬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대중적인 공연예술로서 뮤지컬이 문화 산업화에 가속화 되고 있다. 이것은 오랜 기간 동안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대중과 소통하지 못한 공연예술이 대중화되는 분야로 뮤지컬이 그 포문을 열었으며, 공연예술이 산업화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김영아, 2007).

Ⅲ. 대학 내 뮤지컬학과의 개설 배경과 현황

1. 뮤지컬학과의 개설 배경

뮤지컬은 사회적 수용과 요구에 의해 현시대의 대중 문화코드에 부합하는 공연예술의 대표 장르로 자리 잡게 되었다. 뮤지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뮤지컬 전문극단들이 설립되고 그 위상이 높아지게 되었다. 1991년 뮤지컬협회가 창설되었고, 1995년에는 ‘한국뮤지컬대상’이 제정되어 뮤지컬 제작환경을 전문화하려는 노력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비하여 제작기술이 충분히 완비되어 있지 않았다. 뮤지컬 제작 스태프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뮤지컬을 공연할 수 있는 극장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가장 큰 난관은 뮤지컬 배우로서 훈련받은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이다(최승연, 2006). 따라서 보다 더 다양하고 전문화된 작품의 공급을 위해 뮤지컬 전문 인력이 시급했다. 이즈음에 우리나라에 무한 교육경쟁

의 시대가 도래되면서 각 대학 교육기관들은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실용적, 사회 기능적인 학문 수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결과 새로운 학과 신설의 실천⁸⁾의지의 일환으로 뮤지컬학과가 개설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대학에서의 뮤지컬은 연극영화과 또는 음악과의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는 정도였다. 2000년에 이르러 ‘백제예술대학’이 ‘실용음악과’와 함께 ‘뮤지컬학과’를 각각 정원 80명으로 개설하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 대학에 뮤지컬학과가 처음으로 신설된 것이다. 대학 내에서 학문적으로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실용음악과가 2년제 대학인 서울예술대학에서 처음 개설된 것과 같이(이정선, 2009), 뮤지컬학과도 2년제 대학인 백제예술대학에서 최초로 개설되었던 것이다. 그 뒤를 이어 4년제 대학의 연극영화과에서도 뮤지컬전공이 개설되기 시작하였고, 기존의 음악과⁹⁾와 더불어 실용음악과, 연극영화과 그리고 무용과에 이르기까지 공연예술계열의 각 학과에서는 ‘뮤지컬전공’을 개설하는 학교가 하나 둘 생겨나게 되었다. 2000년 이후에는 아예 뮤지컬학과 또는 뮤지컬전공으로 독립하여 개설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약 30여 대학 및 8개 대학원에 뮤지컬학과 및 전공이 개설되어 있고, 점점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뮤지컬학과는 연극영화과가 속해 있는 공연학부에 있기도 하고, 음악대학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는 등 학교마다 다른 형태로 개설되고 있다. 뮤지컬이 음악, 춤, 연기(드라마) 등의 장르가 연계되고 통합된 종합예술이자 예술의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학문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뮤지컬과가 개설되지 않은 대학에서도 연극과, 음악과, 무용과 등에서 뮤지컬 관련과목을 커리큘럼에 포함시켜 교육하고 있다.

- 8) 뮤지컬 분야는 학생모집에 유리함과 동시에 졸업 후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대중적이고 실용적인 학문분야이므로 여러 대학들이 뮤지컬학과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다.
- 9) 1989년에 대중음악을 교육하는 학과인 실용음악과가 개설된 이후부터, 음악과는 클래식음악만을 교육하는 학과, 클래식음악(순수음악)과 실용음악을 함께 내부전공으로 가지고 있는 학과, 생활음악과로 명칭을 바꾼 학과 등으로 다양해졌다. 본문 내용에서 기존의 음악과는 전통적으로 서양클래식음악을 교육하는 학과를 의미한다.

2. 뮤지컬학과 개설 현황

1) 학부에 개설된 뮤지컬학과 현황

현재까지 우리나라 2, 3, 4년제 대학 내에 존재하는 뮤지컬학과 개설 현황을 살펴보면, 각 대학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유지되거나 혹은 변화되어왔다. 그 개설현황을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1) 관련학과의 내부전공으로 개설
- (2) 관련학과의 내부전공에서 발전하여 뮤지컬학과(전공)로 독립
- (3) 뮤지컬학과(전공)로 신설

뮤지컬학과 또는 전공은 크게 나누어보면 위와 같은 3가지 형태로 설립되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각 대학마다 필요에 의해 다양한 패턴으로 유지되어왔다. 위의 3가지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련학과의 내부전공으로 개설

뮤지컬학과 개설의 시작이 관련학과의 내부전공으로 개설된 경우를 살펴보면 주로 연극영화과, 무용과, 음악과 등 학과 세부 전공으로 개설된 형태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대학으로는 송원대학, 동아방송예술대학, 한세대학교, 명신대학교, 서울예술대학, 동의대학교, 광주대학교, 국제예술전공대학, 중앙대학교, 중부대학교, 한양여자대학, 여주대학 등이 있다. 이들 각 대학의 개설현황은 다음과 같다.

송원대학은 2003년에 엔터테인먼트과를 신설하여 뮤지컬, 실용댄스, 연기모델, 실용음악, 스타일리스트, 기획연출, 연예비즈니스 등의 전공을 두었다. 현재까지 뮤지컬전공은 이 학과 내에서 세부전공으로 운영되고 있다. 동아방송예술대학은 1998년도에 영상음악과로 신설되어 2004년 학과 명칭이 영상음악계열로 바뀌면서 기악, 성악(보컬), 작곡전공으로 세분화하였다. 성악(보컬)전공에서 뮤지컬을 교육하고 있으며, 2005년에 같은 예술학부 내 공연예술계열학과에서 연극전공과 함께 뮤지컬 전공을 개설하여 단국대학교의 경우와 같이 2개의 학과에서 뮤지컬전공을 가르치고 있다.

2004년부터 음악학부의 주도로 영어뮤지컬 공연을 시작한 한세대학교는 음악학부에 피아노, 오르간전공, 관현악전공, 성악전공, 작·편곡전공과 함께 뮤지컬전공을 2006년에 개설하였다. 학생들의 뮤지컬에 대한 이해와 공연의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영어로 된 뮤지컬을 공연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대학에서는 일반대학원 음악과에도 뮤지컬전공이 개설되어 있다. 한편, 명신대학교는 예체능대학 내 음악학과와 체육학과를 두고 있고, 음악학과 내에는 클래식 전공, 실용음악전공, 뮤지컬 전공을 개설하고 있다. 단국대학교나 동아방송예술대학의 경우와 같이, 음악학과의 뮤지컬전공과 연극영화학과의 뮤지컬전공으로 2개의 학과에서 뮤지컬전공을 모두 개설하고 있었으나, 2007년에 연극영화학과는 폐과되어 음악학과의 뮤지컬전공만 남았다.

서울예술대학은 2008년에 무용과의 세부전공으로 댄스뮤지컬전공을 개설했으나, 2009년에 뮤지컬연기, 재즈댄스, 노래 부르기 등의 뮤지컬을 위한 과목을 교육하고 있던 연기과로 소속을 변경하여 뮤지컬연기전공으로 통합하였다. 동의대학교는 2009년부터 예술디자인대학 음악학과 내에 피아노, 관현악, 성악과 함께 뮤지컬 전공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광주대학교 음악학과에는 피아노전공, 성악전공, 관현악전공과 함께 실용음악보컬전공을 두었고, 실용음악보컬전공에서는 명칭과는 달리 실용음악 가수보다 뮤지컬 가수를 주로 양성하고 있다.¹⁰⁾

학점은행제 학교로 시작하여 2008년에 예술전공대학으로 인가를 받은 국제예술전공대학은 국제예술대학으로 학교명을 변경하여 클래식전공, 실용음악전공, 공연기획전공과 함께 뮤지컬전공을 두고 있다. 뮤지컬전공은 뮤지컬 연기와 뮤지컬 보컬로 구분하여 교육하고 있다.

중앙대학교는 서울 캠퍼스에 미디어공연영상대학을 신설하여 신문방송학과와 연극영화학과를 학부단위로 묶어서 2007년부터 신입생을 유치하기 시작하였다. 연극영화학부에서는 연극전공과 함께 뮤지컬연기전공의 학생을 모집하였다. 2010년에는 계열별로 편제를 바꾸면서 예체능계열 예술대

10) 배우/가수/댄서 3분야에 골고루 필요한 연기, 노래, 춤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실기 실습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수준 높은 뮤지컬 배우, 가수 예능분야에 엔터테이너를 양성하기 위한교육이다(광주대학교: <http://www.kjumusic.com> 참고).

학 공연영상창작학부 안에 연극영화학부를 연극전공과 영화전공으로 나누어 편성하고, 뮤지컬전공은 연극전공 안에서 세부전공으로 뮤지컬을 선택하게 하고 있다.

중부대학교는 2010년에 음악학과를 뮤지컬전공과 클래식음악전공으로 나누어서 뮤지컬·음악학과로 확대하였다. 연극영화과, 무용과, 음악과 외에 최근에는 실용음악과에서도 뮤지컬 전공이 개설되고 있다. 한양여자대학은 2007년에 실용음악과를 개설하여 작곡, 연주(피아노, 기타, 베이스, 드럼, 관현악), 가창과 함께 뮤지컬을 세부 전공으로 두었다. 한편, 2005년에 여주대학 예체능계열 음악공연예술과에 개설된 '뮤지컬전공'은 '클래식전공'과 함께 내부전공으로 개설되어있다. 다른 학과에 비해 특이한 현상은 학년별 정원이 40여명이 되어 클래식전공과는 다른 커리큘럼을 사용하여 거의 독립된 학과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련학과의 내부전공으로 개설된 뮤지컬학과(전공)는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며 학생을 교육하고 있다. 연극영화과에서는 연기, 무용과는 몸동작, 음악과 또는 실용음악과는 보컬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2) 관련학과 내부전공에서 발전하여 뮤지컬학과(전공)로 독립

관련학과 내부전공에서 발전하여 뮤지컬학과(전공)로 독립한 경우, 연극영화과나 음악과의 내부전공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발전하는 과정에서 독립학과로 변화되어진 형태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대학으로는 경민대학, 단국대학교, 용인송담대학, 목원대학교, 용인대학교, 대불대학교 등이 있다. 이들 각 대학 개설현황은 다음과 같다.

경민대학 뮤지컬·연기과의 경우, 1998년 개설된 연극영화과(야간)가 2002년에 연극과(주간)와 뮤지컬과(야간)로 분과되었다. 그 이후 영상공연학부로 통합(2008)되어 연기전공과 뮤지컬전공을 두었다. 현재는 연기전공과 뮤지컬전공이 통합된 형태의 뮤지컬·연기과로 정착되었으며, 실용음악과, 디지털영상과 등과 함께 예술체육계열에 소속되어 있다.

단국대학교는 1999년, 조형학부를 설치하면서 연극·영화학과를 연극·영화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 이후 조형학부를 예술조형학부(2000년)로,

예술조형학부를 예술조형대학(2004년)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연극·영화전공을 연극·영화과로 명칭 변경하였다. 2007년에 연극·영화과를 공연영화학부로 확대하면서 연극을 설치영화전공, 뮤지컬전공으로 나누었다. 현재는 예술조형대학 공연영화학부 뮤지컬전공(죽전예술조)으로 부르고 있다. 한편 2001년 예술대학 내에지컬전공 생활음악과(천안예술조)에지세부전공으로 보컬, 연주, 작곡, 뮤지컬 등이 있어서 공연영화학부보다 먼저 '뮤지컬전공'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생활음악과는 매년 뮤지컬공연으로 정기연주를 발표하고 있어서 단국대학교는 공연영화학부의 뮤지컬전공과 생활음악과의 내부전공으로 뮤지컬전공 등 2있어서과에서 각각 뮤지컬을 교육하고 있다.

용인송담대학은 2004년에 방송영상과를 신설하였고, 방송·영상제작전공과 방송연예뮤지컬전공으로 구성된 예체능계열 방송영상학부로 확대하였다. 현재 뮤지컬학과는 예능학과 내 문화컨텐츠계열의 뮤지컬과(방송연예뮤지컬전공)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목원대학교는 음악대학 성악전공에서 뮤지컬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2005년 음악대학 실용음악학부의 뮤지컬전공으로 분리·확대되었다. 실용음악학부가 작곡·재즈학부로 바뀌면서 뮤지컬전공은 성악·뮤지컬학부 뮤지컬전공으로 편제가 개편되었다.

용인대학교는 1996년에 연극영화과를 신설하여 1998년에 연극학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10년에 뮤지컬·연극학과로 확대하였다. 현재 무용과, 영화영상학과, 국악과 등의 타 학과와 함께 문화예술대학 내 소속되어있다. 대불대학교는 예체능계열 내 음악학과에 뮤지컬 전공을 추가하였다가 2006년에 음악·뮤지컬학과로 학과의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 이후 2008년에 음악학과와 뮤지컬학과로 다시 분리하면서 뮤지컬학과는 뮤지컬 단독 학과로서 발돋움하게 되었다.

(3) 뮤지컬학과(전공)로 신설

뮤지컬학과(전공)로 신설이라는 것은 학과개설의 시작부터 뮤지컬학과로 출발한 경우이다. 대표적인 대학으로는 백제예술대학, 대경대학, 청강문화산업대학, 대덕대학, 명지대학교, 동서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백석에

술대학 등이 있다. 이들 각 대학 개설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0년에 실용음악과와 함께 뮤지컬과를 신설한 백제예술대학은 국내 최초로 2년제 과정의 뮤지컬학과를 개설한 대학이 되었다. 2002년에는 대경대학이 3년제 과정의 뮤지컬과를 개설하였다. 문화산업 특성화대학인 청강문화산업대학은 뮤지컬연기전공과 무대미술전공으로 조직된 3년 합숙 과정의 뮤지컬스쿨을 두고 있다. 대덕대학은 2005년에 예체능계열에 연기·뮤지컬과를 신설하였다.

명지대학교의 경우, 2005년에 예체능대학에 공연예술전공과 영상콘텐츠전공으로 문화예술학부를 신설하였고, 2006년에 뮤지컬공연전공과 영화전공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2007년에는 뮤지컬공연전공과 영화전공을 그대로 둔 채 문화예술학부의 명칭만을 영화·뮤지컬학부로 바꾸었다. 동서대학교는 2008년에 '뮤지컬전공'이 있는 공연예술학부를 영화과, 뮤지컬과, 연기과, 이 3개의 학과로 이루어진 '임권택영화예술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예원예술대학교는 2009년에 공연·음악학부에 연극·영화코미디전공, 실용음악전공, 음악전공과 함께 뮤지컬전공을 개설하였다. 같은 해인 2009년, 백석예술대학도 음악학부에 뮤지컬전공을 개설하였다. 영산대학교는 2009년에 예체능계열을 CT(컬처 테크놀로지)학부로 바꾸면서, 예체능계열 연기연출학과를 CT학부 연기뮤지컬학과로 바꾸었다가 현재는 문화산업대학 연기뮤지컬학과로 변경하였다. 이 학과에는 교직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한편, 서일대학 뮤지컬학과처럼 개설되었다가 폐과된 뮤지컬학과도 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전국학생 무용·뮤지컬연기콩쿠르를 개최하던 대구가톨릭대학교는 2006년에 무용학과를 무용·공연학과로 확대 개편하면서 발레전공, 생활무용전공, 한국무용전공, 현대무용전공과 함께 '뮤지컬연기전공'을 신설하였으나, 2010년에 무용공연학과를 폐과하였다. 배재대학교 음악학부는 관현악전공, 성악전공, 작곡전공, 피아노전공을 두고 있었다. 2009년에 작곡전공을 작곡 및 미디어음악전공으로 변경, 성악전공은 성악 및 뮤지컬전공으로 확대하여 뮤지컬전공학생을 선발해왔으나, 현재 음악학부에서 뮤지컬전공은 없어졌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뮤지컬학과 또는 관련학과가 지향하는 뮤지컬배우

전문 인력양성과는 차별화된 교육목표와 비전을 지시해온 충청대학 공연영상연출과와 공주영상대학 무대연출과는 연극, 뮤지컬, 공연 등의 기획 및 연출, 무대디자인, 조명, 음향, 분장 등에 관한 전문가 교육으로 특화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동국대학교는 2007년 연극영상학부에서 공연예술학부로 명칭을 바꿨다가 2008년에 다시 연극학부로 바꾸면서 연극전공과 함께 뮤지컬 전공을 개설하였다가, 현재는 뮤지컬전공의 구분을 없애고 연극전공에서 학과목으로 뮤지컬 관련 과목을 교육하고 있다. 부산예술대학은 연극과를 연극, 뮤지컬과로 개명하였다가 지금은 다시 연극과로 명칭이 돌아왔지만, 교과과정은 여전히 뮤지컬 관련과목 위주로 되어 있다. 경희대학교, 대진대학교, 계명대학교 등 뮤지컬학과 관련 현황에 대해 위에서 언급한 대학 외에 대부분의 연극영화과 또는 뮤지컬 관련학과에서는 ‘뮤지컬장면실습’, ‘뮤지컬 개론’, ‘뮤지컬 연구’, ‘뮤지컬워크숍’ 등의 뮤지컬 관련 학과목을 교과과정에 포함하여 교육하고 있다.

뮤지컬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의 학과(전공)명, 개설연도 그리고 소재지에 대한 현황은 아래 <표 1>, <표 2>와 같다.

<표 1> 2-3년제 대학 뮤지컬학과의 개설연도와 소재지 (2011.3월 기준)

학교	학과명 또는 전공명	개설연도	소재
백제예술대학 공연예술계열	뮤지컬과	2000년	완주
경민대학 예술체육계열	뮤지컬연기과	2002년	의정부
대경대학	뮤지컬과(3년과정)	2002년	경산
송원대학 엔터테인먼트과	뮤지컬전공	2003년	광주
용인송담대학 문화컨텐츠계열	뮤지컬과	2004년	용인
청강문화산업대학 뮤지컬스쿨	뮤지컬연기전공	2004년	이천
대덕대학 예체능계열	연기뮤지컬과	2005년	대전
동아방송대학 예술학부 공연예술계열	뮤지컬전공	2005년	안성
여주대학 예체능계열	음악공연예술과/뮤지컬전공	2005년	여주
한양여자대학 예체능계열	실용음악과(뮤지컬전공)	2007년	서울
국제예술대학	뮤지컬전공	2008년	서울
서울예술대학 연기과	뮤지컬연기전공(3년제)	2008년	안산
백석예술대학 음악학부	뮤지컬전공	2009년	서울
김천과학대학	뮤지컬과	2010년	김천

<표 2> 4년제 대학 뮤지컬학과의 개설연도와 소재지 (2011.3월 기준)

학교	학과명 또는 전공명	개설	소재
동서대학교 임권택영화예술대학	뮤지컬과	2000년	부산
명신대학교 음악학과	뮤지컬전공	2004년	순천
목원대학교 음악대학 성악뮤지컬학부	뮤지컬전공	2005년	대전
명지대학교 영화뮤지컬학부	뮤지컬공연전공	2006년	용인
한세대학교 음악학부	뮤지컬전공	2006년	군포
광주대학교 음악학과	실용음악보컬전공	2007년	광주
단국대학교 예술조형대학	공연영화학부/뮤지컬전공	2007년	죽전
루터대학교 신학인문학부	공연예술학전공	2007년	용인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공연영상창작학부/ 연극전공	2007년	서울
대불대학교 예체능계열	뮤지컬학과	2008년	영암
동의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음악학과/뮤지컬전공	2009년	부산
영산대학교 문화산업대학	연기뮤지컬학과	2009년	부산
예원예술대학교 공연·음악학부	뮤지컬전공	2009년	임실
중부대학교 예술체육대학	뮤지컬·음악학과	2010년	금산
용인대학교 문화예술대학	뮤지컬·연극학과	2010년	용인
호원대학교 방송연예학부	뮤지컬전공	2010년	군산

2) 대학원에 개설된 뮤지컬학과의 현황

현재까지 우리나라 대학원 내에 존재하는 뮤지컬학과(전공)의 개설현황을 살펴보면, 학부와 마찬가지로 각 대학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대학교는 특수대학원인 종합예술대학원에 뮤지컬씨어터전공이 개설되어 있다. 일반대학원 내에 뮤지컬 및 연극창작전공, 영화학전공, 무용학전공, 무용공연전공으로 구성된 공연영상학과가 있으며, 야간과정의 특수대학원에서도 뮤지컬전공을 개설되어 있어 2개의 단과대학에서 뮤지컬 전공이 개설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앙대학교는 1999년에 특수대학원인 예술대학원에 공연영상학과를 개설하였다. 2001년에 공연예술학과와 영상예술학과로 분리하면서 뮤지컬전공을 신설하였으나, 2005년에 이 2개의 학과는 다시 공연영상학과로 묶여져 동일학과가 되었다. 세종대학교는

2005년에 영화예술학과(연기예술), 멀티미디어애니메이션학과, 오페라학과, 뮤지컬학과, 무용학과 등으로 구성된 야간과정의 공연예술대학원을 특수대학원 내에 개설하였다. 2008년에 공연예술대학원을 공연예술매니지먼트학과, 실용음악학과, 무용학과, 오페라학과로 재구성하면서, 실용음악학과 내에 '순수음악전공(피아노교수법, 연주법)'과 '뮤지컬전공(성악, 반주)'으로 개설하였다. 실용음악학과와 '뮤지컬전공'에서는 교과과정을 오페라학과와 함께 공유하고 있다.

세종대학교는 2009년에 문화예술콘텐츠대학원에 뮤지컬연기와 연극을 합친 공연예술학과를 개설하였다. 기존의 실용음악학과에 있는 '뮤지컬노래'와 공연예술학과에 있는 '뮤지컬연기'가 동시에 존재함으로써 각각 다른 대학원의 소속으로 2개의 뮤지컬전공을 개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명지대학교 경우, 대학원 예체능계열 영화뮤지컬학과에서는 영화학과 뮤지컬학을 세부전공분야와 연구 분야로 두어 교육하고 있다. 한편, 대전대학교 문화예술전문대학원 공연영상학과에는 여러 세부전공과 함께 '뮤지컬전공'이 있었는데, 지금은 폐전공이 되었다.

대학원에 개설된 뮤지컬학과(전공)의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 3>와 같다.

<표 3> 대학원 뮤지컬학과 개설연도와 소재지 (2011.3월 기준)

학교	학과명 또는 전공명	개설	소재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과/뮤지컬전공	1995년	군포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예체능계열	영화뮤지컬학과	2000년	서울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공연예술학과	2001년	죽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공연영상학과	뮤지컬전공	2001년	서울
국민대학교 종합예술대학원	뮤지컬씨어터전공	2002년	서울
국민대학교 대학원/공연영상학과	뮤지컬 및 연극창작전공	2005년	서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무용·공연학과	2005년	대구
세종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실용음악과	뮤지컬성악전공	2008년	서울
세종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대학원	공연예술학과/ 뮤지컬연기전공	2009년	서울

IV. 나가는 말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공연예술이 오늘날 대중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 장르 또한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각광받고 있는 공연예술분야는 예술성과 대중성이 결합된 종합예술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뮤지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뮤지컬에 대한 관심과 기대, 사회적 수용 그리고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한 교육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변화와 도전을 추구하는 여러 대학기관¹¹⁾이 대중성과 실용성 그리고 통합적 예술성이 특징인 뮤지컬교육을 위해 학과와 전공을 개설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뮤지컬이 대학 내에서 학과(전공)로 존재하면서 학문적으로 정착하기까지는 모든 신생학문이 그렇듯이 수많은 시행착오와 변화를 거치고 있다.

유서 깊은 학문들의 대부분이 그랬듯이, 그 첫 출발은 정착화 된 현재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새로운 학문이 탄생되어 사회에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끊임없는 학문적 실험과 노력이 수반된다. 특히 시대의 흐름, 필요성과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실용적이고 새로운 학문이 그 역사성과 전통성 그리고 뿌리 깊은 정체성에 근거한 학문으로 정착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변화와 변신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이에스더, 2010).

11) 실용학문은 순수음악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짧은 역사와 전통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회적, 문화적, 예술적인 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가치는 매우 높다. 그 이유는 문화예술의 대중화에 의해 실용음악 자체가 가지는 특수성 즉 문화콘텐츠 산업과 같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 산업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교육을 중시하는 교육목표와 가치화의 전환, 교육의 대상인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수용적 자세 즉 실질적, 현장 적응적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교육기관의 교육적 상업화,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한 운영 등으로 교육기관의 교육목표와 과정의 전환을 가져다주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현상과 사회적, 교육적 환경에 기인하여 실용음악의 수요자가 늘어나게 되었고, 이를 보다 전문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주체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아카데미나 대학교육기관이 생겨나서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다(이에스더, 2008. 실용음악교육의 동향과 실천적 과제. 음악교육공학, p.133-146).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자는 현대 문화산업의 핵심 분야로 자리 잡고 있는 대중적, 실용적 공연예술의 한 분야인 뮤지컬이 우리나라 대학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개설되어 현재까지 변화, 유지, 발전되어 온 것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뮤지컬이라는 새로운 학문분야가 우리나라 대학에서 존재한 시점으로부터 현재의 학과로의 정착에 대해 연구하였다 즉, 뮤지컬이 대학에서 어떻게 학과(전공)로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개설되어온 형태와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뮤지컬학과는 (1) 관련학과의 내부전공으로 개설, (2) 관련학과의 내부전공에서 발전하여 뮤지컬학과(전공)로 독립, (3) 뮤지컬학과(전공)로 신설로 크게 3가지의 형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개설현황은 학과명, 개설연도, 그리고 소재지를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뮤지컬이 대학 내에서 학과로 시작하면서 많은 변화 즉, 학과 명칭과 소속이 바뀌기도 하고, 통합이 되거나 분리가 되기도 하는 다양한 현상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아직은 대학 내에서 뮤지컬이라는 학문이 다소 혼란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뮤지컬은 이제 사회와 대중의 관심과 호응에 부합하는 공연예술의 핵심으로서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다. 그리고 각 대학 뮤지컬학과의 경쟁률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각 학과들이 보다 더 조직적이면서 전문화, 체계화된 교육시스템 내에서 심화교육을 하게 된다면, 뮤지컬학과의 존립은 현재보다는 안정화 될 것이고 학문적으로도 더욱 성장과 정착이 될 것이다.

뮤지컬학과는 이 학과만이 가진 학문적 특성에 의해 향후 해결해야할 당면과제가 있다. 뮤지컬은 춤과 노래, 연기의 전문성이 동시에 요구되므로 실용음악과(또는 음악과), 연기과(또는 연극과), 무용과 등 관련 학과간의 협동 작업이 절실히 필요한 학문분야이다. 대학 자체의 학사규정에 따라 뮤지컬 단일 학과(전공)에서 음악, 무용, 연기 등의 방대한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에는 매우 힘든 상황이다. 또한 현재 대학에 개설된 많은 뮤지컬학과(전공)의 교수-학습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대학 내 연관전공과의 공동운영제도 마련 등 이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된다.

이렇듯 각 학과가 당면한 과제 즉, 학문적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과과정, 전문 교·강사,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 및 운영 그리고 전문서적 및 교재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가 병행되어져야한다. 또한 해외 유명뮤지컬의 의존에서 탈피해 우리문화에 적합한 창작 작품의 제작과 이에 부합하는 시나리오 작가, 연출가, 감독, 작곡가, 배우 등의 전문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뮤지컬학과에 대한 발전 및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한 기초연구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향후 우리나라 뮤지컬과 뮤지컬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고금만 (2002). 한국연극 및 공연이론:창작 뮤지컬의 공연성에 대한 연구: 김광보 연출의<바람의 나라>의 경우. **한국연극학**, 18.
- 김광선 (2008). 한국 창작 뮤지컬의 현황: 뮤지컬 <사춘기>를 중심으로. **한국연극학**, 36.
- 김균형 (2006). 뮤지컬에서 발성에 대한 연구. **공연문화연구**(구, 고전희곡연구), 12.
- 김성희 (2001). 한국 초창기 뮤지컬 운동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14, 51-95.
- 김영아 (2007). 브로드웨이의 영향과 수용 속에서 성장한 한국 뮤지컬의 향후 과제, **인문콘텐츠**, 1(12), 363-382.
- 노영해 (2003). 2002년 토니 수상작들을 통해서 본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주제와 작품경향: <철저히 현대적인 밀리>를 중심으로. **서양음악학**, 6, 227-250.
- 신원선 (2007). 한국 뮤지컬 연구: <지하철 1호선>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20.
- 유인경 (2003). 예그린악단의 뮤지컬 살짜기 읊서에 연구. **한국연극학**, (21),

1-53

- _____ (2003). 한국연극 및 공연이론:1960년대 '제3극장'의 뮤지컬 운동 연구: 뮤지컬 <카니발 수첩(手帖)>을 중심으로. **한국연극학**, 21.
- 이선호 (2008). 국내 공연예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뮤지컬 공연을 중심으로. **한국음악교육공학**, 7, 117-131.
- 이에스더 (2006). 뮤지컬 교수법에 관한 연구: 오르프 교수법 활용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연구**, 1(1), 137-153.
- _____ (2007). 실용적 음악교육의 문화콘텐츠산업으로의 접근, **음악교육공학**, 6, 11-25.
- _____ (2008). 실용음악교육의 동향과 실천적 과제, **음악교육공학**, 8, 133-146.
- _____ (2010). 뮤직프로덕션과의 운영 실태와 미래 전망, **음악교육공학**, 11, 256-271.
- 이정선 (2009). 「한국 대학 실용음악교육제도의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정영목 역 (2004). **150년 뮤지컬의 역사**. 서울 : 도서출판 풀빛.
- 최승연 (2006). 1990년대 한국 뮤지컬 공연의 양상: 주요 흐름을 중심으로, **한국연극학**, 29, 274-275.
- 최창권 (1991). 뮤지컬, 한국음악협회 편: 한국음악총람.
- 최창주 (1997). **한국의 가면극과 뮤지컬**. 서울 : 도서출판 남지.
- 경민대학: <http://www.kyungmin.ac.kr>
- 광주대학교: <http://www.gwangju.ac.kr>
- 국민대 공연영상학과 뮤지컬 및 연극창작전공: <http://gds.kookmin.ac.kr>
- 국민대: 종합예술대학원 뮤지컬씨어터 전공
<http://totalart.kookmin.ac.kr>
- 단국대학교: <http://www.dankook.ac.kr>
- 대불대학교: <http://musical.db.ac.kr>
- 동아방송예술대학: <http://www.dima.ac.kr>
- 동의대학교: <http://music.deu.ac.kr/home>

명신대학교: <http://music.myugshin.ac.kr>

명지대 문화예술학과: <http://www.mju.ac.kr>

목원대학교: <http://www.mokwon.ac.kr>

부산예술대학: <http://theatre.pia.ac.kr>

세종대학교: <http://www.sejong.ac.kr>

서울예술대학: <http://www.seoularts.ac.kr>

에버영과 함께 '60년대의 추억':

http://everyoung.ne.kr/bbs/zboard.php?id=60anni&page=1&sn1=&divpage=1&category=9&sn=off&ss=on&sc=on&select_arrange=name&desc=desc&no=219 (<http://blog.daum.net/musicalmaker/5003501>).

여주대학: <http://www.yit.ac.kr>

송원대학: <http://www.songwon.ac.kr>

용인대학교: <http://www.yongin.ac.kr>

용인송담대학: <http://www.ysc.ac.kr>

중부대학교: <http://www.joongbu.ac.kr>

한세대학교 음악학부: <http://www.hansei.ac.kr>

한양여자대학: <http://www.hywoman.ac.kr>

ABSTRACT

A Study of the Current State of Launching a Musical Theatre Major within Universities in Korea

Rhee, Esther · Lee, Jung sun

Contemporary performing arts are divided into various fields. Today, the most popular field of performing arts would be musical theatre arts. It has been about 10 years since the musical theatre major has become a major field of study at universities in Korea. Currently, about 30 undergraduate programs and 8 graduate programs in Korea offer a musical theatre major, and the number is gradually increasing.

During the initial development, the musical theatre major had been established in various forms in accordance with the circumstances of each university, and they have evolved into current forms of departments after undergoing many changes. The beginning stages of the establishment of a musical theatre major in universities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1) developed from theatre and film departments or developed as a branch of music departments and eventually formed as an independent department, 2) developed as one of internal majors within theatre, dance or music departments, and 3) established as an official music theatre department from the very beginning.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musical theatre major as a brand new field of study from the beginning of its existence to its settlement as an official department or a major at universities in Korea.

key words: Musical, Musical Theater Major, Performing Arts

투고일: 1월 31일, 심사(수정)일: 3월 12일(3월 27일), 게재확정일: 4월 12일